2026.10.11.(주일) 열왕기하 24:18-25:7 「진노하심」 김양재 목사님(2부)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7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잘 들으세요.

24장
18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립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19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0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1 시드기야 제구년 열째 달 십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2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십일년까지 포위되었더라
3 그 해 넷째 달 구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4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5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6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7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바벨론'이 여섯 번이나 나오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안타까운 주님의 사랑인지를 오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데요. 70~8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검사 결과로 알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데 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괜찮은 걸까요?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 끝까지 안 들리고 안 바뀌어요. 지난주 본문에 바벨론 왕이 맛다니야의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로 붙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왕 때 성이 포위되고 양식은 떨어지고 왕은 도망가다 잡혀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된 일**이라고 해요. 오늘 제목이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벼락이 치고 당장 망하는 걸 떠올리죠.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진노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진노

하실까요?

'진노하심' 첫째는,

1. 악을 내버려두십니다(24장 18-20절)

악을 내버려두신다고 하네요. 18절입니다.

> 18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립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_왕하 24:18

이제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돼서 11년간 다스리는데요. 첫 번째 왕, 석 달 동안 통치한 여호아하스와 어머니가 같은 동복형제인 거예요. 요시야도 이렇게 부인이 여럿이네요.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왕이 참 좋은 이름으로 고쳐줬네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았을까요?

19절에,

> 19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_왕하 24:19

시드기야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를 배척했던 형 여호야김을 또 그대로 따라가네요. 여호야김은 말씀을 아주 그냥 불에 다 태워버린 왕이에요. 그래도 이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좀 달라 보였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몰래' 불렀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몰래 부르는 사람 많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좀 있니?"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러다 물었을까요? 시드기야는 절대로 신실한 사람이 아닌데 예레미야에게 보내려니까 신실한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되잖아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야긴을 잡아간 그 바벨론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한 왕으로 옹립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두려움은, 여호야긴이 다시 돌아올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왕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잡혀간 조카 여호야긴 왕과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렘 29:5)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야긴 보고 "제발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바벨론) 끝까지 살아" 이걸 문자적으로 들으니까 '음, 예레미야가 나에게 유리하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무가 외적으로 표현된 게 정치고, 내적으로 표현된 걸 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들교회에 본인은 안 와도 부인은 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편이) "거기 가면 남편에게 순종 가르친다며?" 그러면, (부인은) "아이고, 고마워라" 그러고 와야 되는데 "아니, 자기한테 순종하라고 가라고 하는 거야? 난 안 가!" (하면)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도 너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당신은 아이 때문에 힘들면 우리들교회에 가세요" 하시는 아주 나이스하신 법조인 남편이 계세요. 이분은 똑똑하시기에 본인은 (교회에) 안 가야 할 논리를 점점 더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바꾸는 인지부조화 이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 한 똑똑하신 아주 대학병원 의사 과장님이시고, 천상 여자 여자시고 가늘가늘하신데, 그 바쁘신 분이 집도 먼데 양육 다 받으시고 목장 하시고 초원까지 되셔서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고난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장르와 종류가 참 여러 가지죠. 오시는 권사님이 늘 제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가셔도 지금 뭐라 그럴 분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반드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기도를 제가 했어요. 반드시 뜻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시드기야 또한 말씀을 묻는 것과 따르는 것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 37장, 역대하 36장, 열왕기하 25장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아무리 보내고 물어도 시드기야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이나, 듣고도 따르지 않은 시드기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악한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드기야가 말씀을 안 들을까요? 역대하 36장 12절에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①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교만해요. 이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2절에,

> 12.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_대하 36:12

이 저자가 시드기야 "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시드기야가 뭐라고 "그의 하나님"이래, "그의 하나님". 이렇게 (시드기야의 하나님이라고) 칭해주면서 예레미야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렀어도 하나님은 "**아끼사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셨다**"고 해요. 역대하 36장 15절에.

> 15.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_대하 36:15

아끼시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고 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낮아지질 않아요. 선민의식이 대단한 유대인이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 왕을 세워줬다는 것은 이미 너무 쪽팔리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낮

아질 대로 낮아진 환경인데도 시드기야가 "나는 왕이다" 하고 낮아지질 않아요. 그냥 이해타산으로 꽉 차 가지고, 두려움도 많고 물어도 답을 해줘도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해서 악을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망할 때니까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있는데, 안 들어 안 들어요.

② 두 번째 이유는, '진노하심'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하심 때문에.

(열왕기하 24장) 20절입니다.

> 20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_왕하 24:20

드디어 배반했어요. 여기 20절 맨 앞에는 원어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 왕은 악을 되풀이하고, 왜 나라는 멸망으로 나아갑니까?**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을 응징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진노가 어떻게 왔나요?** 우리 요시야 왕 때 우상을 다 부수고, 유월절을 지키고, 엄청난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왕하 23:26) 이게 개혁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요시야 아들(과) 손자, 이 4명의 왕이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돌이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인) 성전의 보물이 털리고 백성이 끌려간 3차 포로 다음에 세워진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다 겪어도 그대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사건이 있어도 안 돌이키고, 말씀을 들어도 안 돌이켜요.** 저 사람이 낮아진 걸 (모두가) 다 아는데, 나 혼자 "내가 왕이다!" "I am the lord, I am the king!"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노하심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벌을 내리시는 것만이 진노가 아니에요. ★악을 내버려두시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셨다"고 하잖아요(롬 1:24). 오늘 큐티 본문인 신명기 3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 17.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_신 31:17a

그러면 재앙과 환난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고했던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유다의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에요. 그 유다의 역사, 10월 10일. **내버려두신다고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노예요. 말씀을 끊으신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들려주셨는데 왕이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악을 행한 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그 악한 통치도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진노는 유다에게 내리신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큐티하고 설교 듣고 힘들면 시드기야처럼 기도 부탁해요. 그런데 들은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안 따라요. 사건이 와도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고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목장에서 남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내버려두시나?' 그러죠? 내 악은 그대로 있어요.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구속사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일러주는 사람 앞에서, 목자 앞에서, 목장 식구 앞에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가 안 돼요. 그게 내 죄예요.** 우리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히 12:6)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다는 신호가 와야 병원에 가잖아요. ★**오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보이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병원을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목장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한 뼘 인생에서 내버려두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 때문에 바벨론 4차 침공을 불러일으켜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인간이 이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은 말이에요, 이 대민봉사로 인해서 시키지도 않는데 달마다 자신의 간 기능 검사를 했잖아요. 그죠? 검사까지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완전주의(완벽주의)예요. 그런데 간암으로 하루아침에 갔어요. 그런데 완전주의자(완벽주의자)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옆에 있던 저는 늘 아픈 신호를 봤어요. 식생활은 6.25 때도 아닌데 쌀밥에 고기만 좋아하고, 알코올은 중독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잡곡밥을 해놓으면 막 화를 내요. 부잣집 아들이라서 좋고 싫은 게 너무 분명하고. 그런 게 있어, 어쩔 수 없는 살아온 그것. 그러고는 피곤해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남편이) 가기 딱 한 달 전에 늘 이렇게 밤에만 보다가 낮에 햇볕에서 딱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그랬어요. "아니, 간이 아픈가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랗지?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제가 아주 보니까 정확하게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의사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한다"고 검사 결과는 거기(이상이) 안 나오니까.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고 산모 봤지, 하루 종일 외래 보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낙태 스트레스를 지금 술로 풀고 있잖아요. 이게 안 아프면 이상한 거죠. 저는 늘 보면서 염려 근심이 많아서 항상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라도 하면 이건 잔소리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못 됐어요.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라 믿음이 없으면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감사하게도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육의 진노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 적용 질문

Q.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미루면서, '아무 일 없으니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Q. 말씀으로 권면해 준 사람에게 "제가 틀렸습니다" 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Q. 여러분이 성전이니 망하기 전에 제발 지금! 당장! 화내지 말고 병원 가고, 약 먹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하고, 야채도 먹고, 식생활 관리부터 하시면 어때요?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거예요.

그렇게 잡곡밥을 주면 화내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야채는 안 먹어!"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 북에 그분은 굉장히 요새 줄여 가지고 140kg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자기 원하는 것만 먹는 것 같아요.

진노하심은 이렇게 악을 내버려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2. 성이 바벨론에게 포위되게 하십니다(24장 20b절-25장 3절)

그 성이 바벨론에게 다 같이 포위되게 하시는 거예요.

20절 이어서 봅니다.

> 20b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_왕하 24:20b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던 왕이 드디어 이제는 배반합니다. 내버려두신 악이 이제 열매를 맺어요.

에스겔 17장 15절에,

> 15.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_겔 17:15

우리 시드기야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애굽을 붙들어요. 정말……. 그래서 배반했어요. 징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는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싫어요.

진짜 우리 남편도 잘나서 사과를 안 해요. 그래 낮아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한텐 그런 사대주의가 있어요. 말과 군대를 가진 애굽이 더 든든해 보였던 거예요, 끝까지. 우리 친정이 아주 잘 살았는데 시댁은 쫄부야, 갑자기 부자가 돼서 무시가 돼요. 그러면 "문화가 없어, 우리 시댁은 문화가 없어. 우리 친정은 문화가 있어~" 이딴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분별을 못 해요.**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찰나에 암몬, 모압, 에돔이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예레미야는 "거기 같이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딱 그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5장 1절, 2절에,

> 1 시드기야 제구년 열째 달 십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2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십일년까지 포위되었더라_왕하 25:1-2

19개월을 지금 포위를 당했어요. 날짜까지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날 너무 수치스러워서 금식을 한다고 그래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6·25 상기하자 6·25." 그런데 이 시대는 6·25를 겪어 보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몰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누가 포위했어요? 바벨론.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진노하심" 아래서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21장에서는

> 5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_렘 21:5

하나님은 이 포위를 두고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너무너무 참다가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이 포위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또 포위된 채로 이렇게 지금 두시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그냥 온 백성이 의지하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버티면 애굽이 와줄 거라고, 이 성만은 안 무너질 거라고 믿던 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u>이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u>**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통장일 수도 있고, 자식, 내 실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포위된 성안에서 그렇게 이제 잡혔잖아요, 포위됐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또 몰래 불러요, 아무도 모르게요. 이게 예레미야 38장에 이 워딩이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마지막이라도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렘 38:17). 마지막에도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말씀을 끊지 않으셨어요. 진노 중에도 살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부모 마음 아니에요? "다섯 셀 때까지 말 안 들으면 맴매한다. 하나, 둘, 셋, 넷, 넷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이러고 유예기

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눈물겹지 않습니까? "**항복하면**"은 원어로 '나가면'이에요. "네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고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렘 38:18). 그러니까 살길과 죽을 길을 분명히 마지막이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 그래서 우리 큐티를 날마다 해야 돼요.

금요일 큐티 본문 신명기 30장 19절도,

> 19.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_신 30:19b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길 중에서 살길을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지난 주일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고 비굴하게 살려 달라고 하면은 갑자기 그들이 정복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항복하라"는 것은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뭐가 옳아요? **바벨론이 옳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복해야 돼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처방해 주는 거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많아요.**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데, 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걸 순종 못 하네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살길을,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또 시드기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레미야 38장 19절에,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지금 순종하지 않고, 이 왕이 늦게 가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못 하겠어." 이 판국에도 글쎄 **체면을 따지는 거 있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직분 있는 분이 초신자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동생이 오자마자 너무 적용을 잘하고, 바벨론 같은 남편에게 순종을 하니까, 동생한테 쪽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교회를 도리어 안 나오시더라고, 동생은 나오는데. 그리고 갑자기 동생이 자기 비밀을 다 아니까 동생이 자기 얘기를 할까 봐 무슨 얘기를 하려 치면 "쉿!" 그러다 떠나셨어요. 지금 시드기야가 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 두려움에도 또 답을 주셨어요. 20절입니다.

> 20.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뢴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_렘 38:20

"아니야, 조롱하지 않는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런데도 왕이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3절이에요.

> 3 그 해 넷째 달 구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_왕하 25:3

왕이 말씀을 거부하여 버티니 그 고통을 이제 온 성의 백성이 함께 겪는 거예요. **왕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도 그래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절대 못 하는 항복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는데 체면을 붙들고, 목장에 내 죄를 내놓으라니까 그것만은 못 하겠다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제 끝까지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티는 동안 굶는 건 내 식구예요. 사랑에 굶고 말씀에 굶어요. ★버틴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는 고집이에요. 그런데 잘난 사람들은 그 고집을 합리화시키지요. ★포위된 시간은 버티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항복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오는 게 믿음인데, 이게 살길인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가지고 안 들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쇠 멍에를 질 수밖에 없다." 상징을 가지고 보여도 남의 얘기예요. **우리의 적용과 간증이 바로, 이 상징과 표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간증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해도 요시야의 자녀, 손자가 다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내게 스펙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나이스해요. 안 들려요.

여러분이 지금 포위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후에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 적용 질문

Q. '이것만은 안 무너진다'고 믿고 기대해 온 것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이 "나가라(항복하라)" 하시는데, 내가 끝내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Q. "이것만은 못 해" 하며 내가 버티는 동안, 사랑과 말씀에 굶고 있는 내 식구는 누구입니까?

집에서도 있지, 목장에서도 "내가 이 사람만은 안 돼!, 저 목자만은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목장 안 해!" 말씀에 굶고 있는 식구가 내 목장 식구죠.^^;

바벨론을 진노의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드디어 바벨론 때문에 망하니까, 오늘 10절 중에 '바벨론'이 갈대아까지 무려 여섯 번이나 "바벨론에게 망했다, 바벨론에게 에워쌌다". "이제부터 진노의 도구로 작정하신 바벨론이 동작 개시했으니까 지금이라

도 항복하라!" 해도 항복 안 해요.

자, 여러분들은 처음 오면 이제 '**바벨론이 뭐고 애굽이 뭐야?**' 너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이 시기가 정치적으로는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사이에서 이 악하고 경륜이 없는 왕들이 한결같이 친애굽으로 망하는 결정만 했어요. 신학적으로도 다수파, 소수파가 극심한 갈등 구조 속에서 국수주의자인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다수파들은 "유다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그들의 합법적인 왕인 여호야긴이 돌아온다!" 계속 이러니까 우리 잘 된다는 얘기 듣기 좋아하잖아요? 비주류 소수파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말씀으로 구구절절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항복하라! 항복하라!" 이 갈등이요, 신학적으로도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망하는 날까지 계속되었어요. **신념과 말씀의 대결**인데요. 주제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인데요. 그러니 "너희가 망한 이유는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마지막에 "내가 말했었잖아! 바벨론!!" 오늘 망하는 날, 지금 바벨론이 바벨론이 주제예요 지금, 바벨론.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이 나라가 망한다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생명을 걸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다 했잖아요. 전하지 않으면은 막 불붙는 것 같다고(렘 20:9). **★당장 유다의 존립이 아니라 지금은 심판 잘 당하고 훈련받고 훗날의 구원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귀환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 교회, 가정 다 적용되는 '바벨론'인 거예요. 법을 어겼으면 감옥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 잘 받고 오면 나중에 유다같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이제 이거 정치, 신학적 이해되셨어요?

바벨론에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오늘 나의 바벨론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은 아주 실제적인 세력입니다. 사건이 닥쳤을 때 무엇이 바벨론인지 애굽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자녀들이 입시를 치르면서 '서울대가 바벨론인지 지방대가 바벨론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가 바벨론인지. **★바벨론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벨론인가 목장에 가서 늘 파악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오늘 달랐다가 다음 주일엔 또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장과 큐티가 없으면 바벨론을 알 수가 없어요.**

진노하심은 악을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되게 하시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왕이 끌려가게 하시는 거죠.

3. 왕이 끌려가게 하십니다(25장 4-7절)

4절입니다.

4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_왕하 25:4

밤이에요. 곁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버리고 지금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보면서 '야, 나는 시드기야처럼 치사하게 살지는 않겠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떠나겠다, 남편을 떠나겠다, 아내를 떠나겠다, 부모를 떠나겠다, 직장을 떠나겠다!" 하다가 막상 망하게 되면 쥐구멍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앞에 서긴 싫어요. 빠져나갈 곁문부터 찾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피할 곳이 있을까요?**

5절이에요

5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_왕하 25:5

도망갔으니 여긴 신학도 없고 아무 이론도 없고 **자기 두려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따라 잡히는 거죠.** 제가 시어머니 무서워하면요, 제가 시어머니를 다룰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큰소리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군대는요, 금세 왕이 잡히니까 다 떠나 흩어지는 거예요. 내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렘 38:18) 하신 말씀 그대로요. 예레미야에서 전부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끝까지 유예기간을 주는데 포위돼서 사로잡혔는데도 **19개월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요?** 히스기야가 파 놓은 수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버틸 게 뭐가 있으면 우린 도박을 해요. 조금이라도 버틸 게 있으면 나는 이혼을 해요. 끝없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드디어 망했어요. 그래서 망할 때는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한 번만 주면 내가 뭐가 되겠다.' 그럼 분별이 안 되죠. 정말 징하지 않으세요? **드디어 망했어요.** 이거는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함이에요. 이렇게 읽어가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구원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큐티 잘해서 우리가 잘 사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나는 병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원 망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병원하고 구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끝까지 "이 성전을 지키고 싶어, 내 병원을 지키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고 금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들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6절입니다.

6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_왕하 25:6

달아난 왕이 지금 재판 자리에 서서 '심문하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재판하고 선고해요.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겔 17:20). 바벨론 왕은 자기를 배반한 죄를 재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반역한 반역"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왕이 끌려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이에요. **악한 왕의 왕 노릇에도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버려두시나?' 내버려두신다고 영원히 왕 노릇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버려두심은 끝없는 방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하나 옳으나 다 한 뼘이에요 한 뼘.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잘 산다고 그래도 '한 뼘'이에요.

시드기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 7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_왕하 25:7

'마지막이라도 네가 돌아왔으면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렘 38:17) 이 말씀을 들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끝내 말씀을 거부하고 달아났어요. 이제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었어요. 자기의 두 눈까지 잃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같은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도 끝까지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지키겠어요?**

처음에는 예레미야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옳으시다'는 이름을 받고도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아주 시드기야는 그냥 귀가 얇아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예레미야 말도 듣고 거짓 선지자 말도 듣고, 꼭 사울 같아요.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정말 급해지니까 시드기야는 노비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위험을 벗어나고자 했어요. 그래서 노비를 딱 놓았는데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벨론이 글쎄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금세 또 변개했어요. 노비를 놓아주었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들였어요. 잠시의 기복은요 이렇게 참 웃기는 거예요. 끝도 없이 시드기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도 막 급하면 막 헌금하죠. "나 좀 살려 달라"고 그러다가 됐다면 "그 헌금 다시 돌려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시드기야가 말을 끔찍이도 안 듣고 또 안 듣고 팔을 비틀어도 안 듣고, 그런데도 때마다 예레미야를 불러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좀 있냐? 있냐?" 듣고도 하나도 안 듣고. 우리가 기가 막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다 들었잖아요. 또 기도도 부탁했잖아

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망한다는 선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마지막 본 모습이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눈으로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눈이 뽑혔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34장 4절, 5절 보면

4.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_렘 34:4-5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저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바벨론 옥에서 회개하고 평안히 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왕들에게 했던 것처럼 네게 분향을 백성들이 와서 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 그 5절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다가 평안히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기가 막혀서** 이 "평안히", "너는 평안히 죽을 거다. 넌 전쟁하다 죽지 않고 자연사해서 감옥이지만". 이 **'평안히'가 너무나 눈물 나는 말씀**이더라고요. ★ **이 땅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당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 살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시드기야 왕은 백성은 못 구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른 왕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이에요.

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_렘 23:5-6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옳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는 이름이에요. 시드기야가 지키지 못한 백성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구원할 왕을 친히 세우시겠다는 건데 그 왕이 예수님이에요.

시드기야는 밤에 동산 곁문으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밤에 동산에서 잡으러 온 사람들 앞으로 나가서 "내가 그니라." 도망하지 않으셨어요. 심문받으시고 끌려가셨어요.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사 53:8).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_사 53:8

시드기야는 자기 죄로 심문받고 끌려갔어요. 예수님은 내 허물 때문에 심문받고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큐티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신 31:17)라고 하셨죠. **버림받아야 할 사람은 나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롬 5:9)라고 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온 포위는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해요. 항복했다고 우리가 겸손하고 항복한 값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끝까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끝까지 십자가밖에 피할 데가 없어요. 이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께 나아가서 함께 있던 힘든 그 사람 때문에 **시드기야처럼 곁문부터 찾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20절 다시 볼 때에,

> 20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_왕하 24:20a

그런데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_요 6:37

그 앞에서 쫓겨나야 할 우리를 주님이 받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피해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결코 내쫓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 아들들이 그것도 죽임당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시드기야의 마지막 눈 뽑히기 전에 그 모습을 봤는데 자기 눈을 뽑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뽑아 주셔서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내 눈을 뽑아 줘서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예레미야가 미리 다 예언을 해놨어요. **우리 인생 큐티하면 다 예고편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도 지금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눈을 뽑은 거는 아주 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니까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한 뼘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회개하면은 회개를 받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므낫세의 우상숭배예요. "므낫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계속 나오는데 글쎄 그 므낫세,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인간론을 성경을 통해 이 역할 모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행위 때문에 구원 못 받아!" 할 사람은 없다니까요. **성경은 나의 죄를 위해 죽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내 죄를 보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고 맨날 옳고 그름으로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서 잘 믿을 거고~ 이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여기 '**평안히**'라는 그 말 때문에 제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끝에 눈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 회개하고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내 죄가 생각나면 구원이에요.**

교회 다녀도 내 죄를 모르면 아무리 멋있고 성품이 좋아도 구원의 족보에 못 올라가요. 진노 중에 가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구속사의 신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왜 시드기야가 망하는지 오늘 구구절절이 아셨죠?

■ 적용 질문

Q. 내가 밤에 몰래 빠져나가려고 마련해 둔 '곁문'은 무엇입니까?

Q. 달아나고 싶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회개하고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Q. 사람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이 뭐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바벨론이 각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술 안 먹고 바람 안 피우면 최고인 줄 알잖아요. 남자들의 정욕과 탐식과 나태가 본성으로 일어나는 죄인데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본성으로 행하니까 또 금세 바뀌요. 그런데 세 가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어 봐서 남편이 바람피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으로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훈련이 안 될까 봐 남자들의 그 특징인 세 가지 죄를 안 짓는 제일 힘든 사람을 저에게 붙였어요. 바람피우는 사람은요 돈도 안 아깝잖아요. 선심 쓰고 '병 걸려도 몰라~ 돈 나가도 몰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돈 아까워서 자기 몸 아끼느라고 바람도 안 피워요.

바람 안 피워서 너무 좋은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바람피우는 사람은 회개하고 잘 돌아와

요. 우리들교회 보니까 바람피우는 사람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행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피웠다고 그렇게 이혼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헌금 잘하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모르면 약도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멀리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당시 저는 남편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자신이 기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기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그것이 심지어 바람일지라도 바람피우고 오면 내가 딱 용서해 주고 "믿기만 하라"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당신 믿기만 하면 바람피워도 용서해 주겠다." 내가 이러니까 바람을 안 피우더만요.

남편은 열심히 살았지만 전혀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쁜데 이게 이제 너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게 고차원적인 고난을 주셨는데 **돈으로도 안 되는 고난이 가장 힘든 거예요.** 저도 제 속에 교양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고통을 경험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든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냥 십중팔구는 거기서 나오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보기 싫어요. 그리고 다 주제가는 "나 죽을 것 같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시드기야 보고 그렇게 갇혀서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항복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다 '죽을 것 같다'가 그냥 우리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이혼으로, 자살로, 여행으로, 별거로, 딴 여자에게, 딴 남자에게로 피하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사느니 나는 죽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죽어라고 말을 안 듣는 것이 바로 내 얘기라는 걸 아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이 들려서 이 자리에 온 것은 뽑히고 뽑힌 주의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얄짤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 골라~" 해서 사 온 대상이에요? 너무 싸구려 샀다고 다시 가서 다시 바꾸고 싶어요? 골랐으면 (더 이상) 선택이 없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에서 샀건 백화점에서 샀건 지나가다 만난... 그건 남대문 시장에서 샀네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 행복하면 백 번 천 번 이혼하고 새 삶을 찾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봤잖아요.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눈이 뽑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끝도 없어요. **그냥 결혼을 지켜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이 **애굽 그만 쳐다보고 바벨론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 말을 끝까지 안 들었잖아요. 예레미야는 실패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고 바벨론에 안 갔어요. 거긴 애굽에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먹을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애굽으로 나중에 피난 가는 사람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 맺어요. 진노하심은 악을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결과로 이제 포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속사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구원받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도 다들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정말 이게 안 들려서 그러는 거죠. 전도해야 돼요. 특별히 '양육 전도'해야 돼요. 저는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감옥 생활에서 불렀을 찬송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 천부여 의지 없어서 ♬
(1)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 주 나를 외면 하시면 나 어디가리까
(2) 전부터 계시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3)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후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잘 당하게 해 달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시드기야의 회개를 촉구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옆의 모든 가족과 지체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항상 믿는 우리는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주차를 할 때 난리를 쳐도 우린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있어야 이런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위정자가 없어서 유다가 망했어요. 그냥 생명 걸고 예레미야가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 한 사람의 위정자에게 이 구속사가 들려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구속사가 들려야 하는데, 다음 주일에 23회 목세를 위해서 제발 신학적으로 다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알게 해 달라고. 우리가 안 들어도 끝까지 이렇게 전하다가 가야 되는 사명을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지금 가졌어요. 얼마나 목세에서 목장이고 뭐고 잘 섬겨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과 교인들의 생활이 다르면 어떡해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다 한 신학이 되게 해 달라고, 나라가 하나 되게 해 달라

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드기야를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 근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예레미야 말을 듣기를 원했으면서 결정은 거짓 선지자 말을 듣는 걸 봅니다. 주님, 저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므로 저도 아직 이렇게 가지 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래서 제가 싫은 부분은 늘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부분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복적인 악함이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직 갇히지 않고 백성들 사이에 출입할 수 있을 때, 이 왕의 존전에 나가서도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용감하게 전했습니다. 제가 아직 돈에 갇히기 전에, 병에 갇히기 전에, 환경에 갇히기 전에, 내 건강과 내 입과 내 환경이 허락하는 이때에, 주님 제가 주님만 전하다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제 원함은 주님만을 섬기기 원함이지만, 저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만 전하기 가 전하다 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성경에 다 있어요. 이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본 모습이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눈을 뽑고 싶었을 것인데, 뽑아 줘서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깨달으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평안히", "평안히"가 시드기야의 결론인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것이 진노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결론도 회개하여 "평안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어버림을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20년 동안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가 안 되는 그 남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구속사가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광된 일에 저와 같이 쓰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 주시고, 구원으로 천 배 만 배 갚아 주시옵소서. 이 진노하심의 설교를 깨닫고 신앙고백으로 드린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고, 쌓을 곳이 없도록 저희들의 창고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는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는 줄 것만 있도록 저희들의 이 회사와 사업과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물질과 건강과 관계에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천국 갑시다!"

2026.10.11.(주일) 열왕기하 24:18-25:7 「진노하심」 김양재 목사님

아프지 않다고 건강한 게 아닌 것처럼, 신앙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일이 없으면 다들 괜찮은 줄 알지만 그게 정말 괜찮은 게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도 끝까지 안 들리고 안 바뀌는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면 벼락이 치고 당장 망하는 것만 떠올리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진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진노하실까요?

1. 악을 내버려두십니다(24장 18-20절)

Q.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미루면서, '아무 일 없으니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Q. 말씀으로 권면해 준 사람에게 "제가 틀렸습니다" 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Q. 여러분이 성전이니 망하기 전에 제발 지금! 당장! 화내지 말고 병원 가고, 약 먹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하고, 야채도 먹고, 식생활 관리부터 하시면 어때요?

2. 성이 바벨론에게 포위되게 하십니다(24장 20b절-25장 3절)

Q. '이것만은 안 무너진다'고 믿고 기대해 온 것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이 "나가라(항복하라)" 하시는데, 내가 끝내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Q. "이것만은 못 해" 하며 내가 버티는 동안, 사랑과 말씀에 굶고 있는 내 식구는 누구입니까?

3. 왕이 끌려가게 하십니다(25장 4-7절)

Q. 내가 밤에 몰래 빠져나가려고 마련해 둔 '곁문'은 무엇입니까?

Q. 달아나고 싶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회개하고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Q. 사람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안히 천국 갑시다!"